

[사회]

개인파산·면책 신청 2배 급증

광주지법 올 상반기 1만건 이상 접수 검증 강화...개인파산 불허 크게 늘어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건수가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5천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66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법원은 이 가운데 19명의 개인 파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명만 개인파산 불허가를 받았었다. 이는 법원이 재산상황이나 수입을 숨기는 이른바 '사기파산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의 올 상반기 면책 신청은

5천9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73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중 9.7%인 579건이 올 상반기 중 면책 결정이 됐다. 법원은 그러나 최근 2년간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 데도 없다고 허위신청한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개인파산 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법원의 면책 결정만 나오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채무를 한꺼번에 없애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각각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파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에 면책 단계에서는 불허가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올 2분기(4~6월) 면책 불허가 사건은 43건으로 1분기 29건에 비해 48.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면책 허가율은 78%로 지난해 면책신청자의 97.8%가 면책결정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증하기 위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한 파산 사건 수도 2분기 76건에 달해 1분기 18건보다 무려 32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면책(免責)=빚을 면제 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휴가철 교통사고 목요일에 많다

대인사고 5.9%, 사망자 17% 증가

여름 휴가철에는 목요일과 수요일에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3년간 자동차 보험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20일부터 8월 15일 사이 휴가철에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건수가 연평균 7.4%, 9.9%씩 증가했다.

또 휴가철 하루 평균 사고건수도 연간 평균보다 대인사고는 1.7%, 대물사고는 4.7%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철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명으로, 연간 평균 11.2명에 비해서는 다소 적었으나 부상자는 하루 평균 3천591명으로, 연간 평균 3천304명보다 8.

7%나 많았다.

요일별로는 목요일에 사고 빈도가 가장 높아 평소에 비해 대인사고가 5.9% 더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및 부상자 수도 각각 16.9%, 11.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사고 발생률도 평소보다 8.2%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에 대인, 대물사고가 12.6%, 15.0% 늘어났다. 오후 1시~오후 5시 시간대에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높았다. 특히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에는 대인, 대물사고 발생률이 11.5%, 9.6% 높고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39.0%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맑은 하늘 7월 18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만 조금 끼겠다.

광주	구름 조금	21~30℃
전남	구름 조금	21~29℃
전북	구름 조금	21~26℃
충청	구름 조금	20~30℃
강원	구름 조금	21~31℃
경상	구름 조금	20~30℃
충남	구름 조금	21~28℃
충북	구름 조금	20~29℃
경북	구름 조금	21~29℃
대구	구름 조금	20~31℃
부산	구름 조금	21~29℃
인천	구름 조금	20~31℃
서울	구름 조금	20~30℃
대전	구름 조금	21~29℃
전주	구름 조금	20~31℃
제주	구름 조금	20~31℃
제주도	구름 조금	20~27℃

서울대부분 맑음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남해상부 맑음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4:52 썰물 < 10:04
 16:55 22:06
 여수 밀물 < 11:28 썰물 < 05:28
 23:53 17:25

▲해돋이 05:31 ▲해질 19:46 ▲달돋이 09:03 ▲달질 22:05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날씨						
최저/최고	22/28	22/27	22/29	21/30	22/29	22/26



다도해 지키는 자전거 순찰대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무공해 자전거 순찰대'가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사무소(소장 정장훈)는 17일 완도군 청산도에서 순찰과 환경보호 등을 도맡아 하는 '국립공원 자전거 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14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공원 내 야생난·갯벌 밀반출 행위를 단속하며 바다쓰레기 등 정화활동을 하게 된다. /*원도=정은기자 ejchung@

방학중 저소득층 학생 공부 지도 대학생 '멘토링' 확대

광주시교육청 348명 참여

대학생들이 방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대학생 멘토링이 확대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348명의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1천392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는 대학생 멘토링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여름과 겨울방학의 150명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남도학속의 협조로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우수 대학생들이 첫 참여해 고향 후배들을 가르친다.

이들 대학생 멘토들은 주 3차례 2시간씩 총 24시간 저소득층 학생의 교과 학습을 지도하며, 예체는 전공대학생의 경우 특기지도도 실시한다.

또 영화·공연 관람 등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과 우의를 다진다.

대학생 멘토는 시교육청으로부터 교통·식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2천500원씩 모두 30만원을 지원받으며 소속 대학으로부터 봉사점수도 받을 수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멘토(mentor)=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말로, 다른 사람(멘티, Mentee)을 돕는 좋은 조언자·상담자·후원자를 뜻한다. 고대 그리스의 이타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친구인 멘토에게 자신의 아들을 돌봐주라고 부탁했는데 멘토는 친구·선생님·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잘 돌봐줬다. 이후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개정 국기법 반대 국회 본회의장 앞 시위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소속 회원 15명은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개정 국기법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광주·전남지역 13개 노조 참여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에 따라 순천 현대하이스코 등 광주·전남 일부 노조도 18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는 별다른 성과가 없자 18~20일부터 17개 지부 185개 지회(조합원 7만7천여 명)에서 파업에 돌입하고, 23일부터는 전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광주·전남 기업의 노조 중 금속노조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20개 업체 1만2천여 명이다. 하지만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엔 ▲동양정산 등 하남산단 2개사 ▲순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11개 업체 등 13개 노조(200여 명)만이 동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지부와 캐리어 광주공장은 지난 3일부터 자체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어 파업 동참이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가 총사퇴한 삼호중공업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대학들 내신 무력화는 제제한 몽니"

서울대 이준구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17일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시도와 관련, "대학이 신인생 선발 기준으로 학력만 부르짖는 것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내신, 수능과 관련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글에서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욕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제도 하에서 그 욕심을 맘껏 채울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제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내신 상위 40%가 만점을 주겠다는 대학의 태도는 몽니를 부리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목적고에 대해 "특목고 진학생은 이미 내신의 불이익이 있음을 알고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특목고 우대는 사회 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외국 로펌 국내 '제한 진출' 허용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입법 예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FLC Office)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만 한정 적용되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한·EU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상대국에도 적용된다.

외국법자문사의 활동범위는 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한정되며 국내법에는 관여할 수 없다.

국내 법률시장 편법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 변호사와 동일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수업시간: 7월 20일(목) 19:00~21:00, 21:00~23:00

수업장소: 마술마당

수업내용: 마술의 원리, 마술의 종류, 마술의 역사, 마술의 기법, 마술의 연출, 마술의 연출, 마술의 연출

문의: 마술마당 02-6398-2500

현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육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기간: 2007년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교육내용: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교통사고의 종류, 교통사고의 조사, 교통사고의 처리, 교통사고의 예방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02-6398-2500

사람교사 공채안내

사람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람공채 모집안내

사람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전 과목”

2007.9.14부터 모집신청 받습니다

선라이징시오

인원마침시오

직원채용(정규직)

2년제이상 졸업자

남녀(30세미만)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인수원

광주지원 TEL: 082)511-6359

H.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